

새아침 수행한담

“나라 어려움 이기려면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분노품(忿怒品) ②

常自攝身 상자섭신
慈心不殺 자심불살
是生天上 시생천상
到彼無憂 도파무우

항상 제 몸을 스스로 다잡고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 없으면
이것이 천상에 태어나는 길
거기에 이르러 근심 없으리라

意常覺悟 의상각오
明發勤學 명모근학
漏盡意解 누진의해
可致涅槃 가치니환

마음이 언제나 뚜렷이 깨어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닦고 배우면
번뇌 다하여 속박에서 풀리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고 말리라

人相勝毀 인상방해
自古至今 자고지금
既毀多言 기해다언
又毀誦經 우해논인

슬기로운 이는 계율을 지켜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

如羅漢淨 여러한정
莫而誦誦 막이무방
諸人訶謔 제인차차
梵釋所稱 범석소칭

저 아라한처럼 깨끗한 이를
모함하거나 헐뜯지 말라
못 사람이 그를 찬탄하고
범천·제석도 그를 칭찬한다

常守淨身 상수신신
以護願志 이호진에
除身惡行 제신악행
進修德行 진수덕행

항상 제 몸을 삼가지고
성내는 마음을 잘 가둬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을 떨쳐버리고
덕행을 잘 닦아 가도록하라

常守淨言 상수신언
以護願志 이호진에
除口惡言 제구악언

“제 입 삼가 지키고 성내는 마음 가둬
법다운 말이 입에 익숙토록 하라”

亦毀中和 역해중화
世無不毀 세무불해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한다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으니
말 많으면 말 많다 비방하고
말 적으면 말 적다 헐뜯으며
중간을 취해도 또한 비방한다
세상에선 헐뜯지 않는게 없다

欲意非聖 욕의비성
不能離中 불능제중
一毀一譽 일취일예
但爲利名 단위이명

욕심 내는 일은 성스럽지 못하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에
헐뜯었다 칭찬했다 속절 없거늘
모두가 이익과 명예 위한 것일 뿐

明智所覺 명지소예
唯稱定賢 유칭시현
慧人守戒 해인수계
無所毀謗 무소기방

지혜가 밝으면 기쁨을 받고
어질다고 칭찬한다

誦習法言 송습법언

항상 제 입을 삼가 지키고
성내는 마음을 잘 가둬서
입으로 짓는 나쁜 말 끊어 버리고
법다운 말이 입에 익숙토록 하라

常守淨心 상수신심
以護願志 이호진에
除心惡念 제심악념
思惟念道 사유념도

항상 제 마음 삼가해 지키고
성내는 마음을 잘 가둬서
마음으로 짓는 나쁜 생각 씻어버리고
오로지 도만을 마음에 두어라

節身慎言 절신신언
守攝其心 수섭기심
捨惡行進 사에행도
忍辱最強 인욕최강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제 마음 다잡아 잘 지켜서
성냄 버리고 도를 행하라
인욕이 가장 강한 도의 길이다

龍眼

월하스님 (통도사 방장)

나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은
삼독 일으키지 않도록 마음 다스려
지탄받지 않는 지도자 되길...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무인년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움으로 차
있습니다.

무인년 새해는 희망찬 출발이라고만
볼수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지혜를 모아
나가야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현재 경제
는 외국기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보조를 받았으니 지시를 받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요새 어느단체에서 반지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진 사람이 모두
하나씩만 내놓아도 큰 힘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그간의 행동을 탄성하고 각자의 마음
가짐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서
나왔고 그러한 잘못들을 바로 잡아나가
야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탓하기전에 하나된 국민
의 힘을 보여준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더욱 복되고 밝은 해가 될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따라 살림살이가 돌아가는
것이니 복된 새해 살림살이를 위해 우리
불자들부터 차근 차근 실천해 나가는 지
혜를 보여야 할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은 각
자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출가자는 출가자의 직분을 다할
때 국가나 종단, 개인 모두에게 유익합니
다. 스님이 나서서 나라를 위하는 선전을
하고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것이
더욱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
니다. 공무원이라면 자기 맡은바 직분을
잘 행하는 것이 충성하는 길이지 대통령
이나 높은 이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것
은 사사로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나라경제가 이러
게 어렵게 된 것도 각계각층의 공무원들
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다하지 못함때 원인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할 일은 충실히 하지 않고
자기가익만 바라니 뇌물을 주고 또 그
받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그렇게 부정
부패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제는 과감히 부정의 고리를 끊고 공무원
은 공무원의 직분을, 승려는 승려의 직분
을, 국민은 국민의 직분을, 대통령은 대
통령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맑게 정화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이 집
권당시 저질렀던 부정으로 욕을 치르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순간 마음
을 잘못 써서 대통령으로서 직분에 어긋
나는 사사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의 통치권자가 된

- 1915년 충남 부여 생
40년 통도사에서 보살계·비구계
수지
55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56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58~80년 통도사 전계회상
72년 통도사 조실
75년 통도사 학원 이사장
79년 조계종 총무원장
93년 4월 조계종 중정 추대
84~현재 통도사 정변전 주석



“시주했으니 복받겠지” 생각하면
성품 밝히는 일 멀어져요
일념으로 근본자리 찾으세요”

대통령은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
게 대통령의 직분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위치에 주어진 돈을 개인의
돈으로 알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축재해
서는 안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왔다고 자
기것으로 알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은 부
처님 말씀의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
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가다보면 그 이상 잘 하는 대통령이 없
다 할만치 될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경전에 많고 슬하지만
인간살이에서 중요한 것은 간단한 것에

서 출발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지
탄받지 않도록 사는 것 그것이 우선합니
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에서 출발해
서 더 역력이 있어 남을 도우며 살아간
다면 더할나위가지 않지요.

‘삼구부리 하화중생’이라 했듯이 자신
의 실천으로 보리를 구하면서 중생들에
게 이익되게 사는 것이 바로 불제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요즘은 내 젊음 시절에 비하면 살기는
중추해 졌는데 나누는 것에는 인색합니
다. 그것은 모두 욕심으로 꼭 차지할 때
문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하거든요.
욕바라밀에도 있듯이 보시의 공덕은 한
량없는 것입니다.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배
풀고 나서 ‘내가 주었는데, 내가 이만큼 배
풀었는데’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다면 그
것은 참다운 보시라고 볼수 없습니다. 무
엇을 도와주었다거나 해주었다는 생각도
없이 어려운 이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보시의 공덕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마음이라도 힘이 되어야죠. 오히려 마
음은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
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
가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
것이 인이 되어 여건이 맞으면 행으로 실
천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배
우는 것은 자신의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만이 느끼는 기쁨을 맛보게도 해줍
니다.

풀이켜보면 내가 출가자의 길을 선택
해 그나마 개인의 욕심에 매이지 않고

武当派 武当派 武当派 武当派
무당산 장삼봉
武當派 현지 수련회
내가기공(內家氣功)과 내가권법의 발상지이자 무림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신화적 인물 장삼봉 조사의 현문정종(玄門正宗) 무당파(武當派)-중국 호북성 균현 무당산 소재에서 우리나라에 공인대표부를 설치한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본문 무당파에서는 중국 무당파 본산 주회, 무당파 주한대표부 주관사업으로 현지 수련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수련내용은 무당파 적전의 기공비법과 무공절예(武功絶藝)이며 무당기공은 러자적인 현원자(무당파 제 14대 장문인인 동천덕 도장의 4대 적절제자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이자 한국인/현재 무당파 주한대표부 주지)도장이, 내가권법은 전라 양(무당파 삼봉 무교 총교원/자소공 출가도사/유현덕 장문인의 수제자)도장이 각각 직접 전수 합니다.
\* 12월 29일 스포츠서울 사회면 무당파 기사 참조
수련 내용
(1과정) 내가기공(98년 1월~7월, 28주 총 56시간 수련)
비중내용, 선천 단기공, 내외기수방공(장풍, 지풍), 무당경신공(경공법), 무당요령내가공수 외.
(2과정) 무공절예(98년 8월 3일~9일, 6박 7일 합숙수련, 무당산 삼봉무교)
무당대국권(장삼봉 조사가 창시한 모든 태극권의 원조이며 승가의 태극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태을 소요장(팔채자를 능가하는 비전의 掌法), 기문명기(奇門兵器).
등 록
인원제한 : 선착순 20명 마감
회 비 : 250만원 (왕복 비행기, 호텔숙식, 교육비 일체포함)
회비납부(온라인) : 국민은행 301-01-0611-324 (주한무당파)
상업은행 402-05-018440 (주한무당파)
\* 신용카드(12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특 전
한번 등록하신 회원은 평생 무당파 문하제자로 관리되며 정기적으로 집회하여 현지의 최신정보와 수련법을 수시 제공합니다.(회원증, 사범자격부여)
천년에 한번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삼봉 무당파 주한대표부(무당산 자소공 주한 포교원)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1리 600-1 전화 : 0361)261-9733
장문인 理慈眞人 玄元子 합장

한마음 전통메주
청농식품
천등산 한마음 메주의 특징
충북 충주시 신척면이 재배한 순수 메주콩(백태)을 천등산 맑은 청정수로 씻고 삶아 황토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연 발효시킨 옛날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수정을 담그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우리 메주입니다.
천등산 한마음 메주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올고 넘는 백담재를 소재한 천등산 자락의 광동부락에서 부락민이 직접 정성들여 써부리고 재배하여 수확한 햇콩만을 사용합니다.
천등산 자락의 맥반석 단지의 청정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을 씻고 삶아 만듭니다.
신비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는 황토 온돌방에서 볶짐을 이용 순수하게 자연발효시켜 전통적인 맛과 향이 나는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농식품이란?
본 청농식품은 1996년 농림부가 전통식품 제조업체(메주)로 지정된 확실한 우리농민의 업체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충청북도 충주시 신척면 송림리 부락민 5인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신도봉이의 정성과 국민건강증진을 최대목표로 한겨울 내내 열심히 우리의 맛과 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주 소 : 충북 충주시 신척면 송강리 115-1
전 화 : 0441)853-9982
핸드폰 : 011)467-998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 조각
바다위로
홍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원장 이영숙(본명)
대추, 초·재운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병에 개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